

# 현행 니케아신경의 의혹점

Questionable Translation of the Nicene Creed

최철희 윌리엄 주교

(대한성공회 부산교구 초대주교)



## 서문

본 소고는 니케아신경의 영어번역(1662년 번역본과 다른 번역)과 동아시아지역 번역에서 나타난 명확하지 못한 부분들을 성경, 헬라어 원문, 어원학, 그리고 역사적 전망 안에서 명확하게 하기 위한 분석입니다.

동아시아의 역사 안에서 전지전능한 신에 관해서는 ‘유교’(儒家), ‘노장사상’(老莊派)과 ‘대승불교’(大乘佛敎)를 통하여 ‘천도(天道, 하늘의 길)로 다루어졌습니다. 흔히 서양에서 말하는 ‘컨퓨시어니즘’(Confucianism)은 천도(天道)와 유교를 아우르는 표현인데, 천도는 이미 인문주의적인 유교가 되고 말았습니다.

본 소고의 초안을 미국 레드몬드에서 있는 성십자가교회의 교우들과(2013년), 미국의 여러 교파(성공회, 침례교, 감리교, 장로교) 성직자들(2014년), 일본 성공회의 앤드류 나카무라 주교, 교리위원회위원장이며 이 소고를 일본어로 번역해줄 P. 이와키 총사제(2016년), 그리고 미국성공회 총회 참석 차 방문하여 이 초안을 소개받은 대한성공회 박동신 주교와 안애단 사제(2018년 7월)께서 감수해주셨습니다. 특히 아담(W. Adam) 교수 신부님께서 본 소고에 대해 아주 귀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본 소고의 내용과 제안을 차기 전국전례위원회에 상정할 것을 2018년 11월 26일에서 27일까지 열린 미국성공회 올림피아 교구의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또한 2019년 1월 1일에는 초교파적으로 목회자들과 평신도들이 본 소고에 대한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2019년 3월 미국 시애틀에서  
최 윌리엄 주교

## 교구 설립 45주년, 초대주교 성품 45주년 맞으며

박동신 오네시모 주교

언제부턴가 복음서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시는 장면들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12 제자공동체는 때로는 항해 중에 풍랑을 만나 고전을 면치 못하기도 했지만 마침내 목적지에 도달하였습니다.

우리교구도 호수 건너편까지 언젠가는 건너갈 것이라는 희망을 갖습니다.

지난해 제48차 교구의회에서 ‘복음화 쇄신 10년 특별위원회’를 결의하였습니다. 지금 선교, 사목, 재정분과로 나누어 열심히 활동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중간보고서도 교구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였으며, 하반기로 넘어가기 전에 특위 전체모임을 가져 최종보고서도 채택할 것입니다.

우리교구의 머리이시며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향후 교구설립 50주년과 그 이후를 지향하여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하신다면, 복음화 10년 특위가 그 통로가 될 것이라고 희망합니다.

이번에 번역하여 출간한 ‘니케아신경 번역에 대한 되물음’은 어느덧 구순을 바라보시는 윌리엄 주교님께서 6년 이상 탐구하신 결과물입니다. 지난해 시애틀에 가서 찾아 보였습니다. 니케아신경의 번역상의 아쉬운 점과 개정할 내용을 안애단 신부님과 함께 며칠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면서 배우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초대주교로서 감당하셨던 어려움과 아쉬움도 함께 나누시며 회포를 푸는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교구의 재정자립이나 선교확장 등 당면과제에 몰두하느라 하느님의 뜻을 더 깊이 알아가고 성경의 가르침을 더 분명하게 배우고 가르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던 점을 회고하셨습니다.

45주년을 맞는 교구와 교구장 직무를 생각하며 때맞춰 우리말로 옮겨보았습니다. 교구 공동체에 또 하나의 선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번역을 위하여 백석포교회 조프란시스 사제와 울산교회 사공베드로 사제께서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신부님들의 수고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교(Orthodoxy)와 정행(Orthopraxy)은 언제나 하나입니다.

라틴어 니케아신경의 첫 말마디 ;

크레도(Credo), 제 심장을 드립니다.

2019년 6월 1일 교구설립 45주년

## 목 차

### 서론

니케아 신경의 기원(그리스도교의 정체성)

두 가지 언어학적 본성들(개정과 번역을 위해)

동아시아의 언어학적 이질성(삼위일체론을 배제하고)

1. '나'가 아닌 '친교(Koinonia)'를 위한 '우리'
2. 윤리적 '신뢰'가 아닌 의탁으로서 '믿나이다'.
3. 숫자가 아닌 존재로서 삼위일체적인 '하나'
4. 성경에서 드러난 '창조주(Creator)' 와 니케아신경에서 드러난 '조물주(Maker)'
5. '형태적 몸'이 아닌 '영적인 실체'
6. 스스로 '부활하신' 보다는 아버지에 의하여 '부활되신' 예수 그리스도
7. 문화적으로 '얹혀짐'이 아닌 영원적인 '얹으심'
8. 인간의 조상의 혼이 아닌 하느님의 영
9. 하느님을 위한 도구로써 '봉헌됨'이 아닌 신적인 '거룩함'
10. '지적 인식'이 아닌 '기도'로서 '교회'와 '하느님의 나라'
11. 추가조항들

### 요약

### 인용목록

## 서론

### 니케아 신경의 기원(이단에 대항한 그리스도교)

니케아 신경은 예수 당시의 생활언어(아람어)로 이루어진 주님의 가르침에 기원한다. 이것은 바울로 서신과 베드로 서신 그리고 마르코복음과 나란히 구전전통을 통해 내려왔으며, 신앙규범과 신앙고백(예를 들어 세례성사 때 사용하는 사도신경)으로 발전되었다.

그러던 가운데 4세기에 콘스탄틴 대제는 동로마 지역을 점령하고 난 뒤 몇 개월 사이에 이단들에 대항하는 단일한 삼위일체론을 만들어서 점령한 지역의 통합을 굳건히 하고자 하였다.

당시 여러 이단들이 있었는데 우선 알렉산드리아의 아리우스(Arius, 250-336)가 이끄는 아리우스파가 있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성육신(incarnation)을 부정함으로 삼위일체를 반대하였다. 다음으로 아폴리나리우스파(Apolinarianists)가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신적인 본성이 아닌 인성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네스토리우스파(Nestorians)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구분된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유티케스파(Eutychianists)는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아닌 완벽한 신이라고 주장하였다.

첫 번째 니케아공의회(325년)에서 이 가르침의 요약이 초안으로 만들어졌고, 콘스탄틴 공의회(381년)에서 신경으로 채택되었다. 그리고 그 사이 로마에서는 382년에 초기 정경(4복음서, 바울로 서신들)이 확정되었으며, 397년에 성서공인을 받았다. 그리고 3세기부터 니케아신경의 기반이 된 이 전통은 그 권위에 있어 복음서와 동일시 되었다.<sup>1</sup> 그러나 이 전통은 교황권이나 교황권의 추종집단이 구체화한 것이 아니었다. 칼케돈공의회(451년)는 “고린토인들에게 보낸 둘째 편지” 4장 5절(“우리가 선전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고 우리는 예수를 위해서 일하는 여러분의 종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의 성서적 근거를 통해 이 전통이 예언자와 사도들의 입을 통한 것임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였다.

5세기 이래로 이 전통을 기반으로 한 니케아신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친교’(Koinonia)를 강조하는 형태로 공동체 안에서 암송되었다. 예를 들어 안디옥 교회는 감사성찬례 안에서 니케아신경을 “우리는 믿나이다.”라고 암송했다. 하지만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동아시아의 몇몇 독립교단들은 새예루살렘 교회, 후기성도교회(몰몬교), 여호와의 증인처럼 니케아신경을 사용하지 않거나 반대한다.

### 두 가지 언어학적 본성들(개정과 번역을 위해)

아테네식(Attic) 방언(고대 희랍어 가운데 이오니아 계열)은 1세기 당시 산문 문학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를 지닌 주류 언어였다. 예를 들어 플라톤이나 바울로의 로마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도 라틴어가 아닌 이 방언이 사용되었다.<sup>2</sup>

그러나 이 기간(BC300-AD500) 신약성경과 니케아신경에 사용된 구어체이고 세련되지 않은 ‘코이네’(Koine) 방언(대중적이란 뜻)도 있었다. 예를 들어 비언어적인 메디테이션(meditation)조차도 중국어로는 ‘沉思’, 한국어로는 ‘명상’, 일본어로는 ‘冥想’으로 표시되듯이 니케아신경은 은유적으로 그리고 역설적으로 해석된다.

이 두 가지 언어적 경향은 개정이 가능한 인문학 작품 또는 번역이 가능한 영성적 작품으로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 삼위일체론의 사실들을 위한 동아시아의 언어학적 이질성

(1) 유일신론적(삼위일체적)인 하늘의 길(천도, 天道)은 사회 제도적 측면에서 대척점에 있던 묵자(墨子, BC450-390)에 의해 배척되어졌다. 묵자가 창시한 묵가(墨家)는 제자백가(諸子百家)에 속한 한 학파였다. 이 제자백가는 진(秦)나라 이전부터 한(漢)나라 초기(AD206-220)까지 존재하였다. 예를 들어 반고(班固, 1세기)가 쓴 ‘한서(漢書)’에는 도교(道教), 음양가(陰陽家), 법가(法家), 명가(名家), 묵가(墨家), 종횡가(縱橫家), 잡가(雜家), 농가(農家), 소설가(小說家) 및 기타 학파 등이 등장한다.

(2) 폭군이었던 진시황제(秦始皇帝, BC221-207)는 국가의 표기수단을 신탁을 위한 제구와 통치자들이 하늘로부터 받은 징표에 사용되었던 상형문자(갑골문(甲骨文)와 금문(金文))에서 인본주의적 문자인 대전(大篆)으로 바꾸도록 명령했다.<sup>3</sup> 그리고 그는 머리에 관을 쓰고 자신을 “제”(帝, 하늘 또는 신)라고 칭하였고, 이에 따라 하늘은 힘을 잃은 채 유명무실해졌다. 또한 그는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위한 불로초를 찾고자 젊은이들을 각지로 보냈으며, 진나라의 정치를 비판한 유학자 460여 명을 생매장했고, 학자들의 정치적 비판을 막고자 유교서적을 30일 동안 불태웠다. 이처럼 진시황제는 서구의 콘스탄틴 대제가 삼위일체론을 지지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자신의 무자비한 폭정을 비난한 이들에게 보복의 칼날을 휘둘렀다.

(3) 이러한 엄격한 인본주의적 추세 속에서 허신(虛慎)은 AD100년에 “설문해자”(說文解字)를 출간했다.<sup>4</sup> 이 책은 지난 20세기 동안 삼위일체론과 다른 여러 연구의 표준 척도로써 이 인본주의적 태도를 견지하도록 도와주었다. 그러나 저자는 ‘知’(지식)와 ‘智’(지혜)가 어원적으로 ‘矢’(화살)에서 유래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피했다. 이렇듯 ‘知’, ‘智’를 ‘矢’와 분리시킴으로써 ‘矢’가 어원적으로 지니고 있는 “하늘에 대한 맹세”라는 상징적 의미를 이 ‘知’와 ‘智’가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감추었다. 그 결과 논란이 커졌고, 사람들은 고대문자(古文)와 현대문자(今文) 중 어떤 문자로 쓰인 것이 경전에 적합한지를 두고 갈등하였다.

(4) 중국의 ‘문화 대혁명’(1966-1976)은 문자가 지닌 어원학적인 기원을 말소시키고, 단순화시키는 과정에서 2,600여명의 학자들을 숙청하였다.

(5) 언어적 특성상 영어 단어인 ‘spring’은 점프를 뜻한다. 즉 압축 후 탄력성, 탄성, 땅에서 물이 튀어 나오는 곳 또는 봄의 계절로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sup>5</sup> 이처럼 단어와 의미들은 서로 유비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동아시아에서 ‘權’(권)이라는

표현은 AD4세기까지 하늘의 메시지를 사람에게 전달하는 전설의 새를 의미하였다.<sup>6</sup> 하지만 오늘날에 이 글자는 무게를 재는 저울을 뜻한다.

(6) 의미의 언어학적 전달은 기호, 구문 및 용어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중국어는 구문과 문법 없이 방대한 문자(43,000자 이상)를 사용한다. 이것은 동아시아 지역에 영향을 미쳤다.

이 인문학적인 언어로는 삼위일체 또는 유일신론적인 개념을 번역할 수 없다. 예를 들어 하늘을 뜻하는 ‘天’은 오늘날 자연적 원리를 의미한다. ‘진리’ 또는 ‘하느님’이란 뜻의 ‘諦’는 삼위일체 개념에는 부적절하다. ‘Incarnation(성육신)’을 확장된 단어인 ‘誕’으로 또는 ‘Holy Spirit’을 성취된 단어인 ‘誠’으로 번역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대신에 ‘諦’는 발음과 개념 면에서 다양화되었는데 예를 들어 중국어로는 ‘조심스럽게’라는 뜻으로 ‘디’라고 발음한다. 한국어로는 ‘살피다’는 뜻으로 ‘체’라고 발음한다. 일본어로는 ‘포기하다’라는 뜻으로 ‘데이’라고 발음한다.

한 번도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인문학적인 용어가 전통적인 정통 용어와 혼합되어 의미전달을 어렵게 한다. 예를 들어 ‘神’(천상의 영)은 일반적으로 전지전능한 하느님 뜻이지만 중국에서는 ‘인간의 관심’을 뜻하며, 한국에서는 ‘신적인 영’ 또는 ‘사악한 영’을 뜻하고, 일본어에서는 ‘신적인 또는 인간적인 영’을 뜻한다.

한나라 무제(武帝) 때에 인가된 “오경(五經)”은 당(唐)나라(619-975) 때 오경의 주석서인 “오경정의(五經正義)”가 출간되면서 (문자적으로도) 공인되었다. “사서(四書)”는 송(宋)나라(960-1279) 때에 “사서집주(四書集注)”를 출간하면서 공인되었다.

## 1. ‘나’가 아닌 ‘친교(Koinonia)’를 위한 ‘우리’

### 1.1. 현재의 니케아신경

몇몇 니케아 신경 번역본에는 “우리는 믿나이다” 대신에 “나는 믿나이다”로 되어 있다. 영국성공회의 공동기도서, 베어 크릭 연합 감리회, 로마 가톨릭 교회의 캔커타의 복녀 테레사 성당, 웨스트민스터 장로회, 미국성공회 1977년판 공동기도서 안의 대체 양식 등이 그것이다.

### 1.2. 반박 논거

#### 1.2.1. 니케아신경 원문

381년 니케아 신경에는 “Pisteomen eis hena Theon” (‘우리는’ 한 분이신 하느님을 믿나이다)로 되어있다. Pisteomen의 어원은 Peitho(의존하다, 고수하다)이다.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되어있다.

#### 1.2.2. 성경과 신학의 관점

‘우리’는 단지 모인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에 의해 영감을 받아 세례성사를 통해 그리스도와 유기적으로 연합한 것을 의미한다. “유대인이든 그리스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우리는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같은 성령을 받아 마셨습니다.”<sup>8</sup> 바울로는 쓰기를,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이며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셔서 안겨주시는 희망도 하나입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이고 세례도 하나이며 만민의 아버지이신 하느님도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을 꿰뚫어 계시며 만물 안에 계십니다.”라고 하였다.<sup>9</sup> 복음서 안에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누구든지 나에게서 떠나지 않고 내가 그와 함께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적혀 있다.<sup>10</sup>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약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하느님의 권능으로 지금 살아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약하기는 하지만 하느님의 권능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여러분을 대하게 될 것입니다.”란 말도 성경에 적혀 있다.<sup>11</sup>

#### 1.2.3. 사전의 정의

‘우리’라는 말은 주격 대명사이자 복수형으로 한 그룹 안에 있는 자신을 가리킨다. 그러나 ‘나’는 단수인 주격 대명사로 사람이 자신을 가리켜 말하거나 쓰는 것을 가리킨다. (Oxford American Dictionary, 1980)

중국어의 ‘我們’(우리)이란 용어는 일인칭 대명사로 복수형이다. ‘ㅍ’는 ‘나’ 또는 ‘우리’이다(Oxford Chinese Dictionary, 2009). 한국어 ‘우리’는 복수형 일인칭이며, ‘나’는 단수형 일인칭을 뜻한다(동아사전, 1978). 일본어의 “われら(와레라)” (우리는) 복수형 일인칭으로 “われ(와레)” (나, 단수형 일인칭)를 모아놓은 형태이다(國語辭典, 1974).

#### 1.2.4. 동아시아의 관점

“하늘이 하늘을 믿는 누군가를 도울지라도 천명(天命)은 지상에 있는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것이다.”<sup>12</sup> 인(仁)의 육화, 즉 천명과 도덕 윤리의 규범은 특정 인물이 아니라 친교 안에 있는 전체 인물을 말한다. 예를 들어 개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천상의 심판을 내리는 중재자로서의 ‘仲山甫’(가운데-산-아버지)를 말한다.

#### 1.3. 제안

‘우리’(복수형)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유기체의 지체로서 불려야 한다.

## 2. 윤리적 ‘신뢰’가 아닌 의탁으로서 ‘믿나이다’.

### 2.1. 현재의 니케아신경

동아시아의 모든 니케아신경 번역본은 ‘믿음’ 보다는 ‘신뢰’(信)로 되어있다. 미국성공회 공동기도서(2001년)에는 “信(上帝)... 信(主, 耶穌基督)... 信聖靈...” (최고의 주재자에 대한 ‘신뢰’..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신뢰’... 성령에 대한 ‘신뢰’)로 되어있다. 홍콩성공회는 “信獨一上帝... 信獨一的主... 信聖靈...” (한 분이신 하느님께 대한 ‘신뢰’... 한 분이신 주님께 대한 ‘신뢰’... 성령께 대한 ‘신뢰’)으로 고백한다. 대한성공회는 “믿나이다. 한 분이시며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성령을 믿으며... 세례를 믿으며...”라고 고백한다. 또한 일본성공회는 “私たちわ... 信ず.”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 교회를 “신뢰” 하나이다)라고 고백한다.

### 2.2. 반박논거

#### 2.2.1. 니케아신경 원문

1인칭 복수 현재형인 pisteomen(믿는다)는 니케아신경의 시작 부분인 ‘하느님’ 다음에 선포와 함께 한 번만 나타난다. pisteomen은 이 구절을 위한 것이 아니다. Kai eiz(그리고 ....을 믿는다)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한 것이다. 그것의 어원은 Peitho(의존하다, 고수하다, cleave)이다.

“Eiz mian, hagian, katholiken kai apostoliken” (하나이요 거룩하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공교회를 믿는다)와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가 남성적이라면 ‘Mian’(보라)은 그와 대립적인 여성적 표현이다.

#### 2.2.2. 성경과 신학의 관점

“우리는 믿는다” 하는 것은 동료 인간에 대한 윤리적 태도나 법적 규범에 대한 것이 아니다.

1) 낭송자가 지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다. “곧 마음으로 믿어

서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이게 되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얻게 됩니다.”(로마 10:10)<sup>14</sup>

2) 이단자에 대항하여 올바른 믿음으로 삼위일체를 증언하기 위한 것이다. “하기야 여러분 가운데서 진실한 사람들이 드러나려면 분파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1고린 11:19)<sup>15</sup>

3) 삼위일체 하느님을 개인적으로 의존하고 고수하라는 것이다. “바르나바는 가서 그들에게도 하느님의 은총이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였다. 그리고 모두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격려하였다.”(사도 11:23)<sup>16</sup>

### 2.2.3. 사전의 정의

오늘날 중국어에서 ‘信’(Trust)은 거짓 없는 ‘편지’ 또는 ‘사람에 대한 신뢰’를 의미한다. 불교에서 ‘信仰’(Trust-admire, 신앙)은 과거에는 종교적 믿음에 대한 용어로 사용되었지만 이제 더 이상은 그렇게 사용되지 않는다. 信經(Creed, 신경)은 오직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만 쓰인다. 한국어 용어로는 다음과 같다. 믿음(종교적인 신앙)은 명사, ‘믿다’는 동사이며, ‘신용’(confidence)이란 말도 쓰인다. 또한 일본어에서 ‘信任’(trust, 신임)은 동료 간에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며, ‘信ずる’(trust, 신뢰)는 부처님이나 하느님께 대한 종교적인 신앙을 말한다.

### 2.2.4. 동아시아의 관점

#### 2.2.4.1. 천도(유교와 유학파)

어원학적으로 ‘信’(Trust)는 근본적으로 ‘人’(Man, 사람)과 ‘言’(Heavenly-word, 하늘의 말씀 : ‘로고스’)으로 이루어져 있다. ‘言’은 사람이 하늘에 맹세한 것을 하지 않으면 하늘의 형벌처럼 그 사람의 피부에 문신을 새기는 바늘의 형상을 본 뜬 것으로 써 “辛”에다가 신탁제구를 형상화 한 “口”가 합쳐진 형태이다.

‘令’(Order, 명령)은 사람들에게 하늘의 전언을 전하는 하늘의 대리자를 부르는 용어였다. 하지만 이 용어는 은(殷)나라(BC 1324-1066, 중국) 때에 무릎을 꿇고 신의 말씀을 듣는 형상인 ‘令’(Order, 명령)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주(周)나라(BC11세기-BC256)에 와서는 ‘命’(Command, 명령)으로 바뀌었다.<sup>17</sup>

‘信’(계시)이라는 글자와 마찬가지로 ‘伸’은 하늘의 영에 의한 천기(Heavenly Manifestation)를 나타내는 것이었다.<sup>18</sup> 이 셋은(하늘, 로고스, 영: 天信伸)은 ‘하늘의 삼위일체적 실재’(Heavenly Triune Reality, 仨)였다.

“하늘의 영이 이 시대에 역사하는 동안 …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자신의 약속을 완벽하게 마쳤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신뢰(信)에 의한 것이라고 쓰지 않았다.”<sup>19</sup>

공자(孔子 552-479BC)는 신뢰를 하늘에 적용하지 않았지만 논어에서 “군자(君子)는 천명에서 ‘외경’(畏敬)을 느끼고, 대인을 통해 하늘의 영감을 받고, 성인(聖人)을 통해 하늘의 말을 듣는다.”는 말을 남겼다.<sup>20</sup>

하지만 인간을 향해서는 “무릇 사람은 자신의 말을 잘 실천하지 못하기에 나는 어떤 사람에게서도 확신(confident, 信)을 가질 수 없다.”라고 말했다.<sup>21</sup> 오늘날 ‘신뢰’는 말과 행동 사이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 맺는 관계에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말을 들으면 그의 행동을 믿었다. 그러나 이제 나는 그 사람에 대해 어떤 말을 들으면 실제 그의 행동을 살핀다.”<sup>22</sup> “나는 ‘신뢰’(trust)와 ‘확신’(confidence)을 나의 친구들과 나누고 싶다.”라고도 말했다.<sup>23</sup> 그리고 그는 이런 비유도 했다. “먹을 충분한 음식과 방위를 위한 무기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도자에 대한 확신이다. 그렇지 않으면 공동체가 견디어 내지 못할 것이다.”<sup>24</sup>

맹자(孟子, BC 371-289) 역시 ‘신뢰’(trust)를 하늘 아래 사람들에 대한 도덕적 규범(人倫)으로 보았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친밀감(親), 통치자와 백성 사이의 의무(義), 남편과 아내 사이의 구별(別), 젊은 사람보다 나이든 사람을 우선하는 것(序) 그리고 친구들과 사이의 신뢰(trust, 信)가 그것이다.<sup>25</sup>

동중서(董仲舒 179-93BC) 역시 “오상”(五常, 다섯 가지 규범, 상수)<sup>26</sup>을 이야기하며, ‘신뢰’(trust)를 지키는 것을 하늘에 대한 의식(儀式)과는 상관없이 사람들 사이의 도덕적 규범이라 하였다. 이처럼 공자, 맹자 그리고 동중서는 하늘이 아닌 인간에게 ‘신뢰’를 위탁하였다.

동중서 이후 1100년 뒤, 신유학(新儒學)의 주자(朱子, 1130-1200)는 “정직한 마음(忠)이 내면에 있지만, ‘신뢰’(trust, 信)는 친구들에 대한 외적인 태도에 있다”고 주장했다.<sup>27</sup>

#### 2.2.4.2. 노장사상

‘신’(信)은 ‘도’(道)와 사람을 동일시한다. “사심(私心)이 없는(無心) 현자는 도(道)의 상태처럼 다른 이들과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다. 그리고 나면 현자는 사람들에게 신뢰 받는다.”<sup>28</sup> “사심 없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사랑이 가득하고, 정직하며(信), 자연스럽게, 융통성이 있다.”<sup>29</sup> 신(信)이 다른 이들을 향해 외적으로 드러날 때 이것을 “예”(manner, 禮)라고 부른다.<sup>30</sup>

‘도’(道)를 품은 사람은 ‘무위’(無為)를 행한다. 이기적이지 않으며 ‘단일성’(Oneness, 하나됨)을 품고 갓 태어난 아기처럼 다만 신뢰성(信)을 보일 뿐이다.<sup>31</sup> 그것은 갓 태어난 아기가 게으르거나 무책임한 상태에 있다는 뜻이 아니라 신적인 실체인 ‘단일성’(Oneness)을 품고 순결한 상태에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가 순수한 아기의 마음 상태로 돌아올 때, 우리는 우리 마음으로부터 하늘의 혼을 잃지 않을 것이다.”<sup>32</sup> 왜냐하면 아기는 인위적이지도 않으며 다른 사람들을 속이지도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기는 ‘중용’(仲庸) 또는 복음서가 말하는 ‘마음이 가난한’ 상태 안에 있다. 그리고 “아기처럼 도와 함께 걱정하지 말고 바르게 살아가라.”<sup>33</sup> 장자가 강조하듯이 “우주는 하늘과 백성을 담는 큰 그릇”이기에 “삼라만상이 하늘의 그릇”이다.<sup>35</sup>

#### 2.2.4.3. 대승불교

대승불교에서 ‘신(信)’이란 단어는 그동안 잘못 사용되어왔기 때문에 통용되지 않았다.

1) 다르마(또는 붓다)나 아함경(阿含經) 같은 경전(經典)들은 이 단어를 언급하지 않았다.<sup>36</sup> 왜냐하면 ‘신(信)’이란 단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기 전에 불교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들어왔기(BC 2세기) 때문이다.

2) 도안(道安, 4세기)이 ‘산스크리트어’ 불경인 법화경(法華經)을 중국어로 번역했을 때, 그는 ‘다르마’를 ‘신뢰’(trust)라는 용어로 번역해서 사용했다. “석가모니의 설법을 들으면 나는 믿음을 얻는다”(信受).<sup>37</sup> 이것은 삼보(三寶, 불교의 삼위일체)에까지 확대되었다. 삼보란 불교의 3가지 보배란 뜻으로 응신(應身, 神通力)에 영향을 받은 불보(佛寶), 법보(法寶), 승보(僧寶)를 말한다. 불교 공부에 신해행증(信解行證)이란 말이 있다. 곧 믿음·이해·수행·증득의 과정을 거치는데, 그 중에서도 신심(信心, 믿음)은 불교의 첫걸음이며 모든 것의 뿌리라고 가르친다.

3) 그러나 ‘신뢰’는 ‘깨끗한 마음’(Prasada 心淨), ‘부처를 염함’(buddhagataya satia 念佛)과 같은 다른 용어로 대체되었다. 그러므로 중국 남북조(南北朝)시대(420-589)의 사람들은 신뢰라는 용어를 통해 경전이 오역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그래서 ‘번역의 원리’(教相判釋)라는 방법론이 생겨났다.

4) ‘신뢰’(trust)라는 용어는 종교에서 전적으로 사라졌다. “때때로 나는 유학(儒學)을 공부하는 사람을 돕는데, 그 때 불교에 대하여 그 어떤 사람이 가진 오해라도 바로 잡습니다. ... 이 방법은 내가 숲 속에 사는 것 같이 충분합니다.”<sup>38</sup>

### 2.3. 제안

‘고백하다’(confess, 告白)는 것은 삼위일체 하느님께 의존(依存, cleave)한다는 것이 지 하느님을 신뢰(trust)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 3. 숫자가 아닌 존재로서 삼위일체적인 ‘하나’

### 3.1. 현재의 니케아신경

1662년판 영국성공회 공동기도서에는 “한 분이신 하느님” 다음에 ‘침표’가 빠졌다. 2004년도 대한성공회 기도서에도 “한 분이시며 전능하신 하느님”이라고 적혀 있으며, 리빙 트루쓰 루터교회에서도 “한 분이시며 전능하신 하느님”이라고 한다.

동아시아의 번역에서 ‘한 분’은 원문과는 다른 개념이다. 이것은 수치적인 용어를 첨부하여 강화된 숫자적 의미이다: ‘Only’(‘오직 하나’, 미국성공회 공동기도서), ‘獨一’(홍콩성공회 공동기도서), ‘오직’(대한성공회 공동기도서), ‘唯一之神’(“오직”이 강조된 “오직 한 분이신 하느님”; 일본성공회 공동기도서, 1959).

## 3.2. 반박 논거

### 3.2.1. 니케아신경 원문

'ena Theov'(한 분이신 하느님 : 삼위일체)는 숫자적 의미가 아니라 '성부 뒤애가 아닌 '하느님' 다음에 쉼표를 넣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관련(삼위일체)하여 실질적으로 삼일성과 신성을 공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두 번째 단락인 "Kai eis ena kurion Iesoun Xpiston"(그리고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은 신성과 인성이라는 두 본성이 내면적으로 하나의 실재임을 말한다.

또한, '하나'는 'Mia'(역주, 신경에서 교회의 본성을 설명하는 부분)의 전치사 앞에 있다(연합을 통해 실제로 하나). 그리고 'Hen'(역주, 신경에서 세례의 본성을 설명하는 부분)은 세례와 동반하여 이루어진다. 'Mia'는 하느님의 도구적 존재이지만 'Hen'은 하느님의 속성을 말한다.

### 3.2.2. 성경과 신학의 관점

'하나'는 삼위일체를 표현하는 형용사이며 대명사이다.<sup>39</sup> '한 분이신 하느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된 '아버지'의 개념과 합하여 구약(유대교)의 신경과 일치하는데에 영향을 주었다.<sup>40</sup> "한 분이시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sup>41</sup>라는 구절은 모든 사람이 한 분이신 하느님 아버지 아래에서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을 내포한다. "이 모든 것은 같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께서는 이렇게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각각 다른 은총의 선물을 나누어 주십니다."(1고린 12:11)<sup>42</sup>

그리고 "하나이요 거룩하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공교회"할 때의 "하나"는 삼위일체를 뜻한다.

### 3.2.3. 사전의 정의

1) '하나'는 숫자의 단일과 적분에 대한 형용사로, 없음 또는 분수 또는 복수는 아니며 전반부 또는 최소 정수, 2의 절반으로 번호가 매겨진다.

2) 유일한 단 하나, 연합하여 일치를 이룬 형태, 서로 같음.<sup>43</sup> '하나'는 숫자를 의미하고, 또한 의견의 같음, 전체, 모든 것, 존재를 의미한다.<sup>44</sup>

헬라어 'nemein'의 어원은 사용하도록 내어주는 것을 말한다. 철학적으로 '하나'는 숫자가 아니지만 단위와 동등하다. "형이상학에서 '하나'는 또한 최고의 생각이다"(플라톤). "하느님... 하나는 독립적인 전체로 생각해보거나 합계로 생각해볼 수 있다."(니콜라스 쿠자누스)<sup>45</sup>

그러나 동아시아지역 특히 중국어에서 '하나'는 '獨一的'(only one),<sup>46</sup> 또는 전체, 동일 등과 같이 숫자적으로 확인된다. 한국어에서 '하나'는 '첫 번째 홀수'이며,<sup>47</sup> '홀로' 또는 '홀로 하나이신'(one)은 여러 상대적인 존재들 사이에서 숫자적 의미를 갖는다.<sup>48</sup> 그리고 일본어에 '하나'(唯一)는 숫자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sup>49</sup> '둘'(無二)이 아니다.<sup>50</sup>

### 3.2.4. 동아시아의 관점

음양파(陰陽派)에서 ‘하나’는 존재의 창조를 위해 양극(남성)과 음극(여성)을 나누기 이전의 상태이다.

노장사상에서 ‘하나’는 숫자가 아니라 한편으로는 ‘절대무’(完全無 또는 絕對無) 다른 편으로는 ‘있음과 관계 없음’(關係無) 사이의 실재를 나타내기 위한 명사이다. “유일 성만을 포용하기 위해 계속해서 나아감으로 인해 혼돈스러운 세상 삶 속에서 정착할 곳이 무너져 버렸다.”<sup>51</sup> 또는 “현인들이 ‘단일성’을 세계의 목자가 되는 것으로 파악한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sup>52</sup> ‘하나’는 하늘의 실재이며, 시작하는 모든 존재의 근원이다. “‘하나’는 어떤 모양도 갖지 않고, 다만 이것을 통하여 모든 것이 나오는 것이다.”<sup>53</sup>

천도(Heavenly-way)에서 ‘하나’는 ‘인’(仁)으로서 하늘의 ‘장남’(元子) 또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지상 인간 사이의 ‘중개자’(仲山甫)로 변갈아 불린다. 인(仁)이라는 글자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의 두 줄 중 위쪽 줄은 ‘하늘’(신성)을 아래 줄은 ‘땅’(인성)을 상징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역경(易經)에서 ‘하나’는 ‘태극(太極)’이다. 이에 대해 동중서는 ‘하늘의 주권’(天幸), 장횡거는 ‘거대한 공허’(太虛), 정명도는 ‘첫번째 공허’(乾元) 그리고 정이천은 ‘이성’(理)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인문주의적 유교 안에서 ‘인’(仁)은 어떤 결실의 씨앗이며, 인간의 낭만적인 사랑이다.

대승불교에서 ‘하나’는 숫자 개념 안에서 첫 번째이자 ‘동일한 단위’(一體, Sekadhya) 또는 ‘동일’(同一 Sabhinna)을 말한다.

### 3.3. 제안

영어 번역에서 십표는 하느님 다음에 따라와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는 민나이다’는 삼위일체 모두와 연결된다. 니케아신경에 나오는 ‘하나’는 주(周)나라의 조정에서 지방 관리들이 개체적 인물이 아닌 황제의 대리인인 것처럼 하나의 실재(성부, 성자, 성령)의 신성한 일치를 위한 것이다.

## 4. 성경의 ‘창조주’(Creator)와 니케아신경의 ‘조물주’(Maker)

### 4.1. 현재의 니케아신경

#### 4.1.1. 하늘과 땅(存在)의 ‘창조주’

(영국성공회 공동기도서), (호주성공회 기도서, 1978), (미국성공회 공동기도서), (뉴질랜드 전례, 1970), (리빙 트루쓰 루터교회, 보텔), (연합 그리스도의 교회, 북부 해안, 워싱턴, 미국), (웨스트민스터 장로회), (로마 가톨릭 교회, 캘커타의 복녀 테레사 성당, 워싱턴, 미국) 및 (연합감리교회, 베어 크릭, 우딘빌, 워싱턴, 미국).

#### 4.1.2. 두 개의 동아시아 용어

1) 창조주(하느님 아버지)와 조물주(예수 그리스도)

“創造天地並一切有形無形萬物的.”(하늘과 땅과 유형무형한 만물의 창조주, 미국성공회 공동기도서, 1970), “하늘과 땅과 유형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We trust the creator of heaven and earth, everything, shaped and unshaped; 대한성공회), “天地とすべて見えるものと見えないものの造り主を信じます.” (하늘과 땅과 모든 유형무형한 것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일본성공회, 1990).

2) 만물의 조물주(예수 그리스도)

(영국성공회 공동기도서, 1662); (호주성공회 기도서, 1978), (미국성공회 공동기도서, 1977). “모든 것은 주님께서 만드셨나이다”(all things were made by the Lord; 미국성공회 공동기도서); “耶穌基督... 萬物都是藉著他受造”(홍콩성공회), “만물이 다 이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며”(대한성공회), “すべてのものは主によって造られました.”(모든 것은 주님께서 만드셨나이다) (일본성공회)

#### 4.2. 반박 논거

##### 4.2.1. 니케아신경 원문

“Poietien ouranou kai gez.”(하늘과 땅의 창조주)에서 “Poietien”은 “창조주” 또는 “조물주”중 하나이다.

“de ou ta panta hegeneto” (그분(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모든 것이 만들어졌다.) ‘hegeneto’(만들어지다)는 ‘Ginomai’(자연의 현상으로서 생겨나는 것)에서 유래했다. 따라서 두 가지 용어 ‘Poietian’(창조주)와 ‘Hegeneto’(조물주)는 역할이 서로 다르다. “Ton uion tou theu ton monogene” (하느님의 독생자)는 “ou(아니다) poiethenta(poiew, 창조된 또는 만들어진)” 즉 다른 존재들과 같이 만들어지지 않았다. 이는 “Homousion tow Patri”(아버지와 함께 하나의 실체인 존재)를 말한다.

##### 4.2.2. 성경과 신학의 관점

성경은 성부 하느님을 창조자로 보는 반면,<sup>54</sup> 니케아신경은 그분을 조물주로 기록하고 있다.<sup>55</sup> 성경에 의하면 구약에서 ‘창조’(히브리어로 Bare), 신약에서 ‘조물주’는 ‘세상 끝의 창조주’이다.<sup>56</sup>

외경에서는 “당신 스스로는 아무것도 필요치 않으신 분이시다.”<sup>57</sup> “하느님께서 그것들을 만드시되 이미 있던 것들을 가지고 하시지 않았다.”<sup>58</sup> “우리는 믿음으로써 이해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왔다는 것을!”<sup>59</sup>

조물주는 피조물들을 창조하고 난 뒤 낮과 밤을 만들어 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것들을 가지고 바다의 괴물들과 살아있는 피조물들 모두를 만드셨다. 그분은 흔히 시간과 물질을 가지고 무언가를 만드는 인간적인 행위 없이 성사적으로 만들어 내셨다.

인간 역시 창조되어 일생동안 하느님(성령)에 의해 숨을 부여받는다.

### 4.2.3. 사전의 정의

‘만들다’(Make)는 하느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것처럼 무엇인가를 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sup>60</sup> ‘만들다’는 ‘무엇인가를 구성하다, 창조하다’이다.<sup>61</sup> ‘창조하다’(Create)는 “존재하게 하고, 시작되게 하는 것”이다.<sup>62</sup> 존재하게 하고, 시작되게 하는 것<sup>63</sup> 또는 창조는 “그것 자체로 아무 것도 아닌 것(無) 또는 완성된 제품을 유지할 수 있는 대상으로부터 다른 어떤 것을 생산하는 것이다.”<sup>64</sup>

중국어에서 ‘만들다’(制作)는 기존 재료로 구성하거나 어느 한 모양에서 다른 모양으로 변형하는 것이다. 그러나 ‘창조하다’(創造天地)는 절대 무(無)에서 처음으로 ‘존재’를 창출하는 것이다.<sup>65</sup>

한국어에서 “만들다(make)”는 재료, 기술, 목적 등에 따른 인간의 노력으로 인해 사물에게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창조(create)”는 신에 의해 처음으로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sup>66</sup>

일본어에서 “造る”라는 용어는 기존의 재료들로 구성하는 것이다. “作る”는 사전 경험이 있는 문학의 의도적 구성을 말한다. 사전이 “창조하다”(Create)를 정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어 니케아신경에서는 “창조함”(創造する)이 나타나지 않고 “조물주”(Maker)란 말이 등장한다.<sup>67</sup>

### 4.2.4. 동아시아의 관점

‘創’(창)이 시작하거나 또는 처음으로 착수하는 것을 뜻하지만, 동아시아의 경전들은 “하늘이 인간과 사물을 처음으로 만들어 낸다.(生)”고 말했다.<sup>68</sup> 노장사상에서 말하는 피조물의 창조자는 ‘도’(道)이다. 하지만 모든 것은 음양의 운동을 통해 ‘하나’이다. “도는 하나를 낳고, 하나는 둘을 낳는다. 그 둘은 셋을 낳고, 그 셋은 모든 것을 일킨다.”<sup>69</sup> “세상은 성스러운 그릇”으로,<sup>70</sup> 이것은 세상과 창조주 사이의 관계를 의미한다. 장자(莊子, BC 369-286)는 “피조물(物 또는 存在物)은 그 스스로 창조될 수 없다… 그러나 도(道)는 절대무로부터 존재의 시작과 결말을 맺게 한다. 그러나 도(道)는 그 자체로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며 변화도 없다.”라고 하였다.<sup>71</sup>

‘완전무’(完全無 또는 절대무 絕對無)는 ‘창조된 존재들’(有)도 아니고 ‘상대적 비존재’(關係無)도 아닌 그 이상을 말한다. 그것은 이렇게 묘사된다. “어느 날, ‘빛’(光曜)은 ‘존재’와 ‘상대적 비존재’에게 ‘절대무’를 인식할 수 있는 지에 관한 여부를 묻는다. ‘상대적 비존재’는 ‘빛’에게 ‘네, 나는 그것을 압니다.’라고 하며, 큰소리로 ‘절대무’라고 대답했다. 아무런 대답이 없자 상대적 비존재는 절대무의 집에 문을 두드렸다. 그러나 절대무로부터 아무런 대답도 없었다. 마침내 상대적 비존재는 절대무를 만나기 위해 구멍을 통해 집 안을 들여다봤다. 그러나 그는 아무 것도 보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절대무는 너무나도 심오해서 볼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상대적 비존재는 절대무를 보는 것을 포기하고 만다.”<sup>72</sup>

대승불교에서는 ‘순야타’(Sunyata, 실재가 없는 공)를 언급한다. 보이는 것은 무엇이든 간에 그 자체는 실재가 없는 인간의 인식에 의한 상(像)일 뿐이다. 우주의 모든 존재는 “다르마(法, 공극의 실재)를 제외하고 모두가 ‘공’(Sunyata, 空)이다.”<sup>73</sup>

### 4.3. 제안

세 종류의 ‘조물주’(성부 하느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인간)에 대한 혼동을 피하기 위해, 그리고 하느님께서 삼위일체이심을 변증하기 위해 아버지에게는 ‘창조주’(Poietien),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기적을 일으키는 분’(Hegeneto), 인간에게는 ‘제작자’(Demiourgos)로 칭하고자 한다.

## 5. ‘형태적 몸’이 아닌 ‘영적인 실체’

### 5.1. 현재의 니케아신경

“성부와 일체시며”(One being with the Father, 성부와 하나의 존재이시며). (미국성공회 공동기도서), (호주성공회 공동기도서, 1978); (북부 해안 연합 그리스도의 교회), (베어 크릭 감리교회 1998), (리빙 트루쓰 루터 교회, 보델). 몇몇 교단들은 ‘실체’(Substance)란 말을 사용한다. (웨스트민스터 장로교회, 미국) ‘아버지와 본질이 같으신’(Consubstantial with the Father, 캘커타의 복녀 테레사 성당, 로마 가톨릭교회).

동아시아의 번역들은 내부적 본질이 아닌 외부적 형상을 표현한다. “是與聖父同體”(홍콩성공회), “성부와 일체시며”(One body with God the Rather, 대한성공회); “父と一体です”(성부와 일체시며, 일본성공회)

### 5.2. 반박 논거

#### 5.2.1. 니케아신경 원문

“Genethenta ou poiethenta, homoushion tow Patri”(아버지와 같은 본질). ‘Genethenta’(출산 또는 생성)는 ‘Ginomai’(생기게 하다)에서 왔지만 사물이나 존재로 만든 것과고는 다르다. ‘Poiethenta’(구성)는 ‘Poieow’(창조 또는 구성)에서 왔으며, ‘Homoushion’(동일한 장소에서 함께)은 동일한 신적인 본질을 의미한다.

#### 5.2.2. 성경과 신학의 관점

몇몇 교단들에 있어서 “존재”란 용어는 비존재의 실체 즉, “존재하지 않음”을 뜻한다. 그것은 존재의 잠재성이다. 그러나 하느님은 존재를 초월한 영적 실체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피조물들과 다르고 하느님과 동일한 본질 안에 있음을 가리킨다.

#### 5.2.3. 사전의 정의

‘존재’(Being) : 존재, 존재하게 된다.(existence, come into being, Oxford American Dictionary, 1980.)

중국어에서 ‘體’는 몸, 사물 그 자체, 형식을 말한다. 그 반대는 ‘本質 또는 實質’(중

국어에서 원질료(principle quality) 또는 참질료(true quality))가 있다.(新华字典 2000 北京)

한국어에서 ‘체’(體)는 ‘서체’(書體) 또는 ‘한 몸’을 뜻하는 ‘일체’(一體)를 말한다. ‘체질’(體質)은 한 개인의 생리적 성질을 말한다. 반대 용어로는 ‘내심’(內心)이 있다.(東亞辭典 1979, Seoul)

일본어에서 ‘体’(體와 동일)는 몸, 모양, 형태, 양식을 말한다. 반대 용어로는 ‘内容’(내용), ‘もと’(근본)또는 ‘性質’(성질)(내용, 근원, 특징 또는 본성)이 있다.(角川辭典 1974, 東京)

‘體’는 외부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이다.

#### 5.2.4. 동아시아의 관점

어원적으로 ‘體’는 고대의 의식 제물로 바쳐진 동물의 뼈(骨)와 살(豐) 전체를 통틀어 의미하였다. 오늘날에는 양식, 형태, 모양을 의미한다. 반대 용어로는 ‘본질’(Essence) 또는 ‘속성’(Quality)이 있다.<sup>74</sup>

장자(莊子)는 “진정한 주재자(God)는 그의 뒤에 남은 흔적이나 표시는 없지만 외형 없이도 확실한 실재를 지니고 있는 듯하다.”<sup>75</sup> “그들은 아직 이 세상에서 가득한 (하늘의) 무언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다. 지극한 사람(至人 또는 神人)을 제외하곤 말이다.”라고 말하였다.<sup>76</sup> 또한 시경(詩經)은 하늘에 대해 “하늘이 하시는 일에는 소리도 냄새도 없다.”라고 말한다.<sup>77</sup> 이처럼 신(God)은 그분의 실체가 확실하지만 형태나 모양, 이목구비나 외형이 없다.

그러나 성육신(보이지 않는 것에서 보이는 것으로 변화하는 것)의 관점에서 서경(書經)은 “신은 하(夏)나라로 내려오고 계시다.”<sup>78</sup>, “하늘은 그의 장남과 함께 이 나라의 왕이 되었다 … 왕은 어리지만 사람들과 만날 수 있었다.”라고 말한다.<sup>79</sup> 신의 장남은 육체적(體)으로 세상에 와 있다.

또한 시경(詩經)은 이렇게 말한다. “하늘(아버지 신)은 ‘玄鳥’(심오한 새, 하늘의 영을 상징)에게 땅으로 내려가서 ‘商’을 낳으라고 명하셨다.”<sup>80</sup> ‘심오한 새’는 새로운 왕국인 상(商)나라를 세웠다. 하늘의 영(神)은<sup>81</sup> 외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몸을 갖고 있지 않다.

#### 5.3. 제안

우리는 니케아 신경을 통해 신성을 위하여 ‘만들어진’이 아닌 ‘태어나신’을 떠올린다. 그리고 동아시아의 번역에서 육화된 성자를 제외하고는 하느님도 성령도 어떠한 외형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중국어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인 실체와 같은 ‘特質’(특수한 성질)이나 ‘特性’(특수한 본성)으로 있다. 한국어로는 ‘내실’(內實, substantiality)이며, 일본어로는 ‘内包’(내포, connotation)이다.

현재 통용되고 있는 용어인 ‘三位一體’(한 몸 안에 세 위격)는 ‘三位一質’(동일한 신적 본질 안에 세 위격)로 대체되어야 한다.

## 6. 스스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예수 그리스도

### 6.1. 현재의 니케아신경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시고(rose)” … “하늘에 올라(ascended).”

(영국성공회 공동기도), (호주성공회 공동기도서, 1976); (미국성공회 공동기도서, 1979), (뉴질랜드 전례, 1970), (살아있는 진리 루터교회, 보델, 미국), (웨스트민스터 장로교회, 미국), (캘커타의 복녀 테레사 본당, 미국), (베어 크릭 연합 감리회, 미국), 또한 (북부 해안 연합 그리스도 교회, 미국).

동아시아의 표현은 구문 문법 없이 중국 한문의 용어대로 ‘復活’을 사용하여 능동태, 현재 시제를 쓴다. “第三天他復活”(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미국성공회), (홍콩성공회), “사흘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한국성공회) 또한 “聖書にあるとおり三日目に みがえり.”(성서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일본 성공회 기도서).

### 6.2. 반박 논거

#### 6.2.1. 니케아신경 원문

“Henastanta te terite hemera, kata taz giraphic, kai hanerthonta eiz tous usananz” (그분은 성서 말씀대로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나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동사 “일어나다”는 부정 과거 시제이다.

‘Henastanta’(부활 : 명목상, 남성적, 단수, 부정 과거)는 그 어원이 ‘Hinistemi’(일어나다, 또는 일으켜지다의 원인)이다. 그것은 다른 누군가 (하느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킨 것을 의미한다.

‘Hanerthonta’(승천, 제 3자, 단수, 부정과거)의 어원은 ‘Havalambanw’(받아들이다, 모임 안으로 받아들이다)이다.

‘Henastanta’(부활)과 ‘Hanerthonta’(승천)은 둘 다 부정과거 용법의 수동형으로써 하느님 아버지께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시고(부활되시어), 하늘로 올리우신(승천되신) 것을 알려주는 것으로, 전례적인 시어이다.<sup>82</sup>

#### 6.2.2. 성경과 신학의 관점

##### 6.2.2.1. 초기의 기록들

바울로의 편지들 가운데 AD 70년 이전(381년에 니케아신경이 확정되기 이전)에 데살로니카로 보내진 서신이 있다. 그 서신들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의한 것이 아닌 하느님 아버지께 의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승천에 관한 것이다.<sup>83</sup> “바로 이 예수를 하느님께서 다시 살리셨으

며 우리는 다 그 증인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이 예수를 높이 올려 당신의 오른편에 앉히셨습니다”고 씌여있습니다. <sup>84</sup> 다른 편지들도 수동형이었다 (1고린 6:14, 15:15; 로마 4:24, 10:9, 에페 1:20; 갈라 1:1, 예외적인 경우는 1데살 4:14).

“나자렛 예수, 그분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박아 죽였지만 하느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입니다.” <sup>85</sup>

마르코에 따르면, “너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자렛 예수를 찾지만,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다”(Hegerthe : 그분은 일으켜지셨다). <sup>86</sup> ‘다시 일으켜지셨다’는 것은 마태오복음과 <sup>87</sup> 루가복음도 확증하는 바이다. <sup>88</sup>

#### 6.2.2.2. 하느님 아버지를 위한 ‘천사들’

보이지 않는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천사, 목소리, 꿈 또는 사건을 통해서 당신의 메시지를 계시하신다.

“그 때 천사가 여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무서워하지 마라. 너희는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를 찾고 있으나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다. 전에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이 누우셨던 곳을 와서 보아라.” (부정과거의 Hegerthe) <sup>89</sup>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다른 협조자를 보내주셔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계시도록 하실 것이다. 그분은 곧 진리의 성령이시다.” <sup>90</sup> 여기에 삼위일체의 개입을 내포하고 있다.

성육신과 마찬가지로 천사가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 너는 하느님의 은총을 받았다. 이제 아기를 가져 아들을 낳을 터이니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 성령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성령이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감싸주실 것이다.” <sup>91</sup>

이 가운데 어떤 것도 우발적으로 또는 자연스럽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느님 아버지께 의해 일어난 일이다. <sup>92</sup> 구약에서 “내가 그를 일으켜 승리하게 하였다. 그의 앞길을 평탄하게 닦아 준 것도 나다. 그가 나의 도읍을 재건하라. 포로 된 내 백성을 해방시키리라.”라고 말한다. <sup>93</sup> 고레스는 하느님의 대리자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로 올리셨다.” <sup>94</sup> 그리고 “주님은 하늘로 올리움을 받으셨다.” <sup>95</sup>

#### 6.2.2.3. 하느님 아버지께 순종하시는 아드님

니케아신경에서 “하느님 아버지 … 하느님의 외아들이시며” 하는 표현들은 아버지께 대한 아들의 순종을 의미한다. <sup>96</sup> “이리하여 모든 것이 그분에게 굴복당할 때에는 아드님 자신도 당신에게 모든 것을 굴복시켜 주신 하느님께 굴복하실 것입니다. 그 때에는 하느님께서 만물을 완전히 지배하시게 될 것입니다.” <sup>97</sup> 바울로는 “자녀 된 사람들은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고 말했다. <sup>98</sup> 그리고 예수님은 “나는 내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고 하느님께서 보내셔서 왔다.” <sup>99</sup> “나는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려고 왔다.” <sup>100</sup>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은 구약성경에서 예언되었다. <sup>101</sup>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도 내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편과 내 왼편 자리에 앉는 특권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다. 그 자리에 앉을 사람들은 내 아버지께서 미리 정해 놓으셨다.”<sup>102</sup>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sup>103</sup> “아직 제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sup>104</sup>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러자 그들은 예수를 잡고 싶었으나 그에게 손을 대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예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던 것이다.”<sup>105</sup> 주님의 시간은 아버지의 것이었다. 그러므로 압박한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께 기도했다. “아버지, 나의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무엇이든 다 하실 수 있으시니 이 잔을 나에게서 거두어주소서.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sup>106</sup>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길이다”라고 말씀했고<sup>107</sup> 당신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셨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는 사람도 내 사람이 될 자격이 없다.”<sup>108</sup> 동아시아에서 ‘길’(道)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 인간의 ‘머리’(首)를 든 사람의 형상을 따서 형성되었다. 헤로데 왕에게 가는 인간적인 길 말고 ‘다른 길’을 꿈에서 동방박사들에게 알려주었다.<sup>109</sup> 삼위일체 안에서 “하나”인 존재로 “코이노니아”를 이루신 “하느님께서 주님을 다시 살리셨으니 우리도 당신의 권능으로 다시 살려주실 것입니다.”라고 하였다.<sup>110</sup>

#### 6.2.2.4. 원본 니케아신경의 구문

니케아 신경의 두 번째 단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한 실체 안의 두 가지 다른 본성이 구문으로 표현되고 있다. 즉 사람이 지닌 인성(과거 수동태)과 하느님 아버지가 지니신 신성(부정과거)의 두 가지 구문으로 표현된다.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Pathonta),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묻히셨으며” 예수 그리스도는 수동태 과거로서 “사람들에 의하여”란 말이 생략되어 있다. 이 말이 생략된 이유는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 의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을 이미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일으켜지셨으며(부활하셨으며, Hanestanta : 3인칭, 단수형, 부정과거) 또한 하늘에 올리우셨다(Hanerthonta : 3인칭, 단수형, 부정과거). 이 표현에는 모두가 이미 아는 것처럼 “하느님 아버지에 의하여”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다. 이 두 가지 말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느님 아버지에 의해서 부활과 승천에 수동적이었음을 암시한다.

#### 6.2.2.5. 부정과거가 비부정과거의 언어로 번역됨

영어 번역에서는 헬라어 부정과거 본문의 과거시제를 “그는 다시 일어나셨다(그는 부활하셨다)”와 같은 방법 말고는 달리 번역할 길이 없다. 일부 번역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는 감사 성찬례의 축성 기도 가운데 수동적으로 표현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니케아 신경의 부정과거 시제의 용례에 대한 가르침이 미리 있지 않는 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삼위일체와 별개로 부활하신 것처럼 낭송자를 오도할 수도 있다.

구문 문법이 없는 중국어본은 많은 상형 문자로 번역된다. 또한 유일신론적인 개념을 인문주의적 언어로 자연스럽게 번역 할 수 없다.

한국어 안에서 능동태로 표현된 ‘부활’은 중국의 한문의 영향을 받은 것이며 “다시 살려지시다”(being raised to life)와 같은 구어체 수동적 용어를 무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일본어본은 부정사 시제가 없는 “甦り”(소생; 현재 시제의 능동태)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 6.2.3. 사전의 정의

“부활(Resurrection)”: 1.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남(American Oxford Dict.). 수동태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켜짐(Concise Oxford ictionary, 1964). “復活”(turn around-live; Oxford Chinese Dictionary, 2009). “부활”(revival from the death; 동아사전, 1980). 또한 “いきがえる(이끼가에루)”(능동태로 표현된 죽음으로부터 소생, Kadokawa Kokugo Jiten, 1974).

### 6.2.4. 동아시아의 관점

현재 쓰이는 ‘復活’(부활)이란 용어는 시제가 없이는 수동태 또는 능동태로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어의 수동태는 ‘말미암아’(동사 또는 부사, ~ 때문에 또는 ~에 기인하는) 와 ‘의하여’(부사, 근거하거나, 의존하거나, 또는 ~때문에)로 만들어진다. 또는 단순히 동사와 함께 ‘되살려지다’(다시 살려내어지다) 이다.

그리고 일본어로 ‘により(니요리)’(부사, ~으로) 또는 ‘られる(라레루)’(동사, 이루어지다)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장자(莊子)는 축루(髑髏, 죽은 사람의 두개골)라는 사람에게 말했다. “그대는 내가 천신에게 부탁해서 그대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소생시키고, 그대를 집으로 보내 부모님과 아내와 아이들과 마을 사람을 만나게 하면 어떻겠는가?”<sup>111</sup>

하늘의 길(天道)에서, “내 마음이 감동을 받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는 죽은 사람을 살리며 뼈와 살을 결합하여 생명을 부활시킬 수 있는 신숙(申叔, 제 3자에 대한 천상적 표현)”을 불렀다.<sup>112</sup>

자신들 스스로 소생할 수 없었고 다만 하느님 또는 신숙(申叔)에 의해서만 가능했다.<sup>113</sup>

## 6.3. 제안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살려지셨고 하늘로 올리우셨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 아버지께 의하여 부활-승천에서 수동상태에 계셨다.

## 7. 문화적으로 ‘앉혀짐’이 아닌 영원적인 ‘앉으심’

### 7.1. 현재의 니케아신경

일부 번역본에는 성부 오른편에 "앉다" 대신에 "앉아 계시다"라는 조항이 있다. (미국성공회 공동기도서, 1977), (호주성공회 기도서, 1978), (베어 크릭 연합 감리회), (북부 해안 연합 그리스도 교회), (캘커타의 복녀 데레사 로마 가톨릭 본당), (살아있는 진리 루터 교회, 보델).

영국성공회와 더불어 레드몬드의 웨스터민스트 장로회의 몇몇 번역본들은 예외이다.

### 7.2. 반박 논거

#### 7.2.1. 니케아신경 원문

‘Kathezomenon’(스스로 앉다, 대격, 단수, 남성, 분사, 현재 시제), ‘Hek’(출처가 불분명한), ‘dezion’(어떤 사람의 오른 손), ‘tou Patros’(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을 암시한다.

현재 시제는 항구적인 것을 보여 준다. 대격의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수동태를 의미하며, “하느님의 오른편”은 신적인 실체를 위한 것이다.

#### 7.2.2. 성경과 신학의 관점

대격의 경우에 “앉다”라는 의미는 또 다른 신적인 실체(하느님 아버지)께서 그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개하였으며, 현재 시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항구적인 신적인 실체를 확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재의 진실성과는 대조적으로, 문화적으로 “앉아 계시다”는 것은 다른 것으로 바뀌기 전에 일시적인 것이다.

#### 7.2.3. 사전의 정의

“앉다”는 것은 “다소 영구적인 자리에 있다”를 말한다(Oxford Dictionary 1966). 또한 “위원회의 위원으로 자리를 차지하다”를 말한다(Oxford American Dict. 1980).

“坐在”(앉다)는 최고주재자로서 “右邊”(우편)에 있다는 것이다.(新化字典2000, 北京). “앉아 계시다”(위치를 잡다; 동아시아전, 1979, 서울) 또한 “父の右に座して”(성부 오른편(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계시며(Kadokawa-kokugoziten, 1874, Tokyo)로 나와있다.

#### 7.2.4. 동아시아의 관점

“하늘의 명령에 따르면, 문왕(天王)은 하늘의 오른편과 왼편에 머물러 있다.”<sup>114</sup> ‘오른편과 왼편’은 공적으로 하늘에 계신 하느님과 당당히 함께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장자(莊子)에 보면, 공자의 제자인 안회(顔回)는 내가 ‘좌망(坐忘)’ 즉 “법정의 일을 잊어버렸다”고 말하였다.<sup>115</sup>

어원적으로 ‘좌’(座)는 법정에 있는 자리를 뜻한다. 하지만, ‘좌’(坐)는 법정에서 판결을 내기 위하여 앉아 있는 좌우의 두 사람을 뜻한다.

### 7.3. 제안

원본은 세상에서 사명을 마친 후에 하느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초대하신 것처럼 대격으로 표현되어 있다. 그러나 “앉아 계시다”라는 것은 문화적이며 일시적인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동아시아에서 중국어 번역본은 한문 ‘坐’(앉아있는 사람)를 사용하지만 일본어 번역본에는 ‘座’(장소)로 사용한다.

## 8. 인간의 조상의 혼이 아닌 하느님의 영

### 8.1. 현재의 니케아신경

“거룩하신 영(성령, Holy-spirit).”  
(2양식, 미국성공회 공동기도서, 1979)

“거룩하신 신(성신, Holy-ghost).”  
(영국성공회 공동기도서, 1662), (호주성공회 공동기도서, 1976)

동아시아에서는 ‘거룩하신 영’(하느님)을 인간의 조상을 나타내는 ‘성령(聖靈, 신령한 조상들, Sacred-ancestors)으로 오역되었다.  
(2양식, 미국성공회 공동기도서, 1979), (홍콩성공회).

‘성령’(신령한 조상들, 대한성공회). ‘せいれい’(세이레이) (신령한 조상들, 일본성공회).

### 8.2. 반박 논거

#### 8.2.1. 니케아신경 원문

“Kai eiz to Puneuma to Hagion” (또한 거룩하신 영으로).  
영어의 ‘거룩하신 영’(Holy-spirit)과 독일어의 ‘거룩하신 신’(Holy-ghost)은 16-17 세기에도 똑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프뉴마’(영)라는 단어는 ‘프뉴’(숨, 호흡, 본질적인 영)에서 나왔다. 대문자로 시작하는 ‘하기 온’은 신적인 실존(거룩하신 영)를 뜻하는데, 반면에 소문자로 시작한다면 이것은 신성한 도구를 뜻하는 것이다.

#### 8.2.2. 성경과 신학의 관점

거룩하신 영(The Holy-spirit, Holy-ghost)은 생명의 수여자이신 하느님이시며, 예언자들을 통해 하늘의 메시지를 전하고, 사람들에게 경청하도록 영감을 불어 넣으시고, 사람들로부터 경배를 받으신다. “천사가 이렇게 대답하였다. 거룩하신 영(성령)이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감싸주실 것이다. 이다.”<sup>116</sup> 이것은 마리아의 요청에 대한 하느님의 응답이나 보상이라고 하기 보다는 하느님의 주도적인 은혜이다. 그러나 하느님을 위한 도구로서 소문자 ‘h’의 “holy”는 통상적인 용법으로 부터 분리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대격으로 하느님 아버지께서 사용하시는 것을 의미한다.

### 8.2.3. 사전의 정의

신(Ghost) : 초기의 사용법에서는 ‘사람의 정신’(a person’s spirit)이라는 의미이며 ... 아랍어에서 온 ‘ghoul’에 속한다. ‘Ghul’은 ‘점유’(seize)라고 하는 근본적인 의미를 형성한다.  
: 죽은 후에 나타나는 사람의 혼.<sup>117</sup>

신(Ghost)는 다음과 같다 : 1. 생명의 원리 (하느님의 영, 성신).  
2. 죽은 사람의 혼.<sup>118</sup>

### 8.2.4. 동아시아의 관점

‘거룩하신 신(Holy-ghost, Hagious-puneuma)은 문자 그대로 “신령한 조상의 혼”을 뜻하는 인간 조상을 나타내는 한문으로 오역되었다. 한국어로는 ‘성령’(신령한 혼), 일본어로는 ‘御靈’(최고의 영) 또는 ‘聖靈’(신령한 조상의 영)으로 번역되었다.

그러나 어원적으로 ‘靈’은 ‘비’(雨), ‘하늘의 신탁을 위한 3개의 제기’(口口口), ‘한 명의 제관’(巫)과 같은 글자들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각각의 글자들은 전문적인 여성 제관이 메마른 대지 위에 비를 내려주시기를 바라면서 하늘에 제사를 드리는 것을 암시한다.

순자(荀子 314-236BC)는 하늘을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조상 숭배를 소개하였다. “왕은 하늘에 대한 왕조의 첫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3년에 한 번 모든 조상에게 큰 제사를 드린다.”<sup>119</sup> 인간의 조상과 하늘은 그 근본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드리는 제사가 점차적으로 유사해져갔다.

더욱이 오늘날 인문주의 영향 아래에서 ‘神’(천상의 영)이란 문자는 하느님의 영이라기보다는 인간의 정신으로 오역된다. 중국어에서는 인간의 ‘정신’(精神)으로 번역되지만, 한국어에서는 신령한 조상을 가리키는 ‘성령’(聖靈)으로 번역된다. 어떤 인문주의자들은 ‘神’(신)이라는 문자는 ‘身’(물리적인 몸)으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말한다.<sup>120</sup> 둘 사이에 아무런 구분도 없이 말이다. ‘신령’(神靈)과 ‘영혼’(靈魂)은 인간의 영을 말한다. ‘귀신’(鬼神)은 악령을 말한다.<sup>121</sup> 그러나 ‘신적인 거룩하신 영’은 ‘신명’(神明)이다.

일본어로, ‘세레이’(せいらい, 문자적으로 신령한 조상의 혼) 또는 ‘레이’(らい, 인간의 혼)는 ‘육’(몸)과 대칭되는 부분이다. ‘세이신’(せいしん)은 육체와는 정반대의 인간의 정신 또는 마음이다. 그렇지만, ‘신’(しん)은 ‘신’이며 ‘고고로’(こころ, 인간의 마음), ‘다마시’(魂)는 ‘인간의 정신’이다.<sup>122</sup>

‘여’(如) 문자의 변화는 “하늘에 대한 순종”이라는 일신론적인 개념으로부터 인문주의의 유추적인 의미인 “같은”으로 바뀌었다.

구어체로 표현하자면, 한 인간 안의 두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음과 양의 법칙에 따라 죽을 때에 흙으로 돌아가는 형태를 지닌 몸(形魄)과<sup>123</sup> 또한 영혼(靈魂)으로부터 나와서 하늘로 올라가는 ‘선명한 밝음’(昭明)이 되는 기(氣)이다.

어원적으로 볼 때 하늘의 영(神)은 두 가지 글자로 이루어져있다. ‘제단’(示)과 ‘하늘의 말’(申)이다. 이것은 인간에 대한 하늘의 의도는 하늘의 번쩍이는 번개로 표현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늘의 영에게 경배 드리는 것은 천상의 피조물을 옹호하고, 하늘의 영으로 복을 받기 위하여 ‘희생제사’(祭祀)를 드리는 것을 말한다.<sup>124</sup>

반면에 인간의 조상은 ‘示’(제단)와 ‘目’(명판)으로 형성된 ‘祖’로서, 사당의 조상에게 살아있는 가족의 애뜻한 마음을 드리는 것을 의미한다. “살아있는 가족들의 소중한 마음을 드리는 것이다.”<sup>125</sup> 고사(告祀)를 드리면서 가족 구성원의 경조사(결혼, 출생 등)를 조상에게 보고드린다.

“하늘과 땅에 대한 제사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은 하늘을 공경하지 않는 불경자(不敬者)이다. 또한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불효자(不孝子)이다.”<sup>126</sup> 공자는 이 두 가지에 관하여 이렇게 구별하였다. ‘하늘의 영’에게는 ‘예배’를 드리고, ‘인간의 영혼’은 ‘기념’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선조들의 영혼에게 제물로 드리는 것은 그들을 달래주는 것(諷)이다.”라고 하였으며<sup>127</sup> “죽은 자를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그들을 멀리 두는 것은 지혜이다.”라고 하였다.<sup>128</sup>

한(漢) 왕조 시대에는 두 가지가 분명하게 구별되었다. ‘귀’(鬼, 인간의 혼)<sup>129</sup> 와 ‘하늘의 영’(神)이다. “인간의 혼은 하늘의 영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와도 가까워질 수 없다.”<sup>130</sup> “아무도 인간의 방식으로 하늘의 의도를 알 수가 없다. 다만 전조를 통해서만 하늘의 영을 알 수 있다.”<sup>131</sup> 몇 년 전에 작고한 한 목사는 자신의 은퇴 예배 때에 하느님과 조상 사이의 혼돈에 대하여 설교를 남겼다(김영웅, 한국감리교회 감독).

### 8.3. 제안

우리는 조상을 예배하지 말고, 하늘의 보상을 바라는 인간의 자기노력도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선의와 호의로 인간에게 생명을 베푸시는 분이신 거룩하신 영(the Holy-spirit)을 옹호해야 한다.

## 9. 하느님을 위한 도구로써 ‘봉헌됨’이 아닌 신적인 ‘거룩함’

### 9.1. 현재의 니케아신경

두 가지 동아시아 번역본들인 중국어와 한국어는 삼위일체를 번역하면서 “Holy”를 “聖(신령한, sacred)”으로 잘못 번역하였다.

“聖父”(sacred-father), “聖子”(sacred-son), “聖靈”(sacred-spirit; 미국성공회 공동기도서, 2001). “我們信使徒所傳唯一聖而公之教會”(홍콩성공회), ‘성부’, ‘성자’, ‘성령’ (대한성공회).

“使徒たちからの唯一の聖なるこおうかい” (일본성공회).

(미국성공회 공동기도서), (호주성공회 공동기도서, 1978), (웨스터민스터 장로회), (베어 크릭 연합감리회), (리빙 트루트 루터회, 보델), (캘커타의 복녀 데레사 본당, 로마 가톨릭 교회), (북부해안 연합 그리스도 교회).

“하나이요 공변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으며(I believe in one catholic and apostolic Church).” (대안 예식서를 제외하곤 “Holy”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지 않다. 잉글랜드 성공회, 1662).

## 9.2. 반박 논거

### 9.2.1. 니케아신경 원문

‘하기온(거룩한)’은 성령을 언급할 때 두 번 등장한다. ‘성령으로’(동정녀 마리아에게 혈육을 …), ‘성령을’(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은 대격 또는 주격과 단수로서 신적인 실체이다. 성령을 가리킬 때의 하기온의 ‘하(Ha)’는 대문자이다.

게다가 소문자 ‘하기온(hagion)’은 “하나이요(Eis mian) 거룩하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공교회”에 쓰인다. ‘하기우’(신성한 또는 하느님께 봉헌된)라는 단어는 대격으로 여성형이다. ‘하기온(hagion)’의 어원은 ‘하기우스(hagous)’(평범한 상태에서 구분되어 하느님께 드려지거나 봉헌된)이다.

‘헤기아스타이’(성화된, 성별된)는 하느님을 위한 도구이다. “믿지 않는 남편은 믿는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됩니다.”<sup>158</sup> 바울로는 신적인 것을 위한 ‘에이스(Eis)’와 창조된 존재를 위한 미아(Mia, 대격) 사이를 구분하여 사용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eis)이며 성령도 하나(eis)입니다. 이와 같이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셔서 안겨주시는 희망도 하나(mia)입니다. 주님도 한 분(eis)이시고 믿음도 하나(mia)이고 세례도 하나(eis)이며 만민의 아버지이신 하느님도 한 분(eis)이십니다.”<sup>133</sup> ‘아포리스메노스’(Aphorismenos, 선택되거나 부르심 받은)은 “하느님의 복음을 위하여 사도로 부르 받은, 구분된 것을 뜻한다.”<sup>134</sup>

‘크슈쿠오’(Xukou, 호흡하다, 동물의 생명, 또는 혼의 원리)에서 나온 ‘쿠슈켄’(Xuken)은 ‘수마(Suma, 사람의 몸)와 반대이다.”<sup>135</sup>

### 9.2.2. 성경과 신학의 관점

구약의 히브리어 어근인 ‘KDS’(kadosh, 거룩)에서 신(神)의 본질은 존재들과 분리되어 있다.<sup>136</sup> “내일 아침 주님께서 알려주실 것이다. 누가 당신의 사람이며 누가 거룩하며 누가 당신 앞에 나아갈 수 있는지 알려주실 것이다. 당신께서 택한 사람을 당신께로 나오게 하실 것이다.”<sup>137</sup> “내 무죄함을 밝히시는 하느님, 부르짖사오니 들어주소서. 이 곤경에서 나를 빼내 주소서. 불쌍히 여기시고 내 기도를 들으소서.”<sup>138</sup> “주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이(ton hosion)를 찌지 않게 하시리라.”<sup>139</sup> 타오르는 덩불과 성막에 등장하는 ‘거룩’은 하느님의 현존을 의미한다. “지극히 높으신 이, 보좌에 영원히 앉아 계시는 이, 거룩하신 분이요 불리는 이께서 말씀하신다.”<sup>140</sup>

그러나 하느님께 바쳐진 도구는 "성도(성인)"와 같이 창조된 존재들이다. 신약에서 하느님은 '거룩하신 분',<sup>141</sup> '거룩하신 아버지',<sup>142</sup> '거룩한 종 예수'라고 불린다.<sup>143</sup>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주님, 그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시다."<sup>144</sup> '거룩'은 신성한 실체를 의미한다, "과연 헤로데와 본티오 빌라도는 이 도성에서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작당하여 주께서 기름 부어 그리스도로 삼으신 주님의 거룩한 (Hagion) 종 예수를 거슬렀습니다."<sup>145</sup>

반대로 라틴어에서 파생된 '신성한'(sacred)은 하느님께 드러진 사람이나 어떤 물건인 것이다. 예를 들면, "성경",<sup>146</sup> "율법",<sup>147</sup> 사도들,<sup>148</sup> "신앙",<sup>149</sup> "성도"<sup>150</sup>를 가리킨다. 또는 "무덤이 열리면서 잠들었던 많은 옛 성인들이 다시 살아났다."<sup>151</sup> 와 같은 경우이다.

### 9.2.3. 사전의 정의

'거룩'(Holy) : 축성된(Consecrated), 신성한(Sacred), 하느님.<sup>152</sup>  
: 하느님의 것<sup>153</sup>

중국어로 '신성한'(Sacred)은 '종교적(神聖的), 흠숭할만한(受崇敬的), 또는 중대한(重大的)'을 뜻한다. 그러나, '거룩한'(Holy)은 '천상적(上帝的) 또는 정결한(聖潔的)'을 뜻한다.<sup>154</sup> 한국어로 'Holy' 또는 'Sacred'는 모두 '거룩' 또는 '고결'(Loftiness)이다.<sup>155</sup> 일본어로, '히지리'(히지리)(聖)는 '현인(賢人), 성인(聖人), 또는 고승(高僧)'을 의미한다. 그들은 도덕적으로 깨끗하지만, 신적인 실체는 아니다.

### 9.2.4. 동아시아의 관점

어원학적으로 '성'(聖)자는 귀(耳), 신탁용 그릇(口), 경청하는 사람(壬)이라는 세 가지 근본적인 문자로 구성되어 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 하늘을 경청하고 신의 의향을 받든 그릇 안의 물체에 있는 표지를 보는 것을 암시한다.

주(周) 왕조에서 도구적인 사람은 '천사'(天吏), '성인'(聖人)으로 불리며 발전되었다. '성'(聖)자는 '덕'(德)으로 감화를 받아 '인'(仁)과 함께 살아야한다.<sup>156</sup> 하늘이 메시지를 전하면 "사람은 경외감을 느낀다."<sup>157</sup> 현자는 출생 시에 평범한 사람으로 태어났다. 하지만 하늘에 대한 메시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에 대해서 심각할 정도로 두려움을 느낀다.

### 9.3. 제안

중국어 번역에서는 '성'(聖, Sacredness)이라는 단어는 하느님이 아닌 도구적 존재에게 적용해야한다. 한국어 번역에서 '성'(聖)이란 단어는 '성부', '성자', '성령'에서 떼어내야 하고 구어체로 대체해야 한다. 이것은 석가모니를 뜻하는 '성자'(聖子)와 혼동할 수도 있다.

일본어 번역에서는 '세이'(聖)라는 글자의 '오우'(王, 인간 통치자)는 '조'(하늘의 말씀을 듣는 사람)으로 대체되어야 한다.<sup>158</sup>

## 10. '지적 인식'이 아닌 '기도'로서 '교회'와 '하느님의 나라'

### 10.1. 현재의 니케아신경

니케아 신경에 동사와 함께 세 가지의 주격이 나온다. "우리는 믿나이다", "우리는 인정하나이다", "우리는 기다리나이다." 이것은 인생의 3 단계이다. 즉 교회 안의 삶, 하느님의 나라 안의 삶, 그리고 부활 이후의 영원한 삶을 말한다. (1662년판 영국성공회 공동기도서), (웨스트민스터 장로회), (호주성공회 공동기도서, 1978), (미국성공회 공동기도서, 2002), (살아있는 진리 루터교회), (북부해안 연합 감리교회), (홍콩성공회)

또 다른 번역본들은 이렇게 말한다. "나(우리가 아님)는 믿나이다, 나는 고백하나이다, 나는 기다리나이다" (캘커타의 복녀 로마 가톨릭 교회), (베어 크릭 연합감리교회).

하지만 동아시아의 번역본들은 이렇게 되어 있다. "우리는 믿나이다, 우리는 승인하나이다, 우리는 기다리나이다." (홍콩성공회), (미국성공회 공동기도서, 2001).

"믿으며"(두 문장에 믿나이다), "기다리나이다"(한국성공회); "믿나이다, 인정하하나이다. 기다리나이다" (일본성공회).

### 10.2. 반박 논거

#### 10.2.1. 니케아신경 원문

1). "*(Pisteoumen) Eiz mian, hagian, kathokiken kai apostoliken ekklesian*, (우리는(나는 이 아님) 하나이요 거룩하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공교회를 믿으며)에서 'mian'(이어오는 : 대격, 단수, 여성형)은 하느님의 도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래에 있다.

2). "*homorogoumen en Baptisma eizaphestin hanartiwn*"는 "우리는 죄를 용서하는 하나의 세례를 인정한다"를 말한다. 'En'은 실제적으로 '하나로 결합된 것'을 말한다. 'Homorogeoumen' 는 '약속하다' 또는 단수로 '논쟁 없이 솔직하게 맹세하다'를 뜻한다.

3). "*prosdokoumen hanastasin neklwn, kai zwen tou mellontoz aiwvoz.*" (우리는 죽은 이들의 부활과 후세의 영생을 기다린다.) '프로스도쿠멘'은 '찾아보다' 또는 '개인적인 바램에서 기대하다'는 말이다.

#### 10.2.2. 성경과 신학의 관점

1) "우리는 믿나이다"(피스테우멘, 의지하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위한 교회의 도구적인 가르침에 대한 것이지<sup>159</sup> 의탁에 대한 말이 아니다.<sup>160</sup> 이 가르침은 유추적으로나 철학적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영감 아래 역설적인 말씀으로 이해되는 것이다.

2) "우리는 감사하게 인정하다"(호모로구멘)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세례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이다. 유형론적으로, 세례는 하느님 아버지께서 행하신 출애굽을, 친히 세례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세례의 인정, 그리고 안

수를 통하여 삼위일체의 거룩한 영에 의한 감화를 내포한다. 세례에 대한 더 깊은 정보는 ‘좋은 씨를 밭에 뿌리는 비유’에 있다.<sup>161</sup>

3) “우리는 희망적으로 기대한다”(프로스도쿠멘)는 말은 ‘존재의 영역’을 넘어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기대한다는 것이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다음에는 장가드는 일도 없고 시집가는 일도 없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처럼 된다.”(마르 12:25)

### 10.2.3. 사전의 정의

‘민나이다(To cleave in)’는 교회에 의지하다는 것이다. 죄 사함의 은혜를 ‘감사하게 인정하라’는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하느님 안에서 희망을 가지고 기대하라’는 것이다.<sup>162</sup>

그러나 중국어본에서 ‘신뢰’(信, Trust)는 윤리적 규범이다. ‘행정적인 인정’(承認)은 개인적인 욕망 없이 ‘갈구함’(盼望)을 말한다.<sup>163</sup>

(한국어에서 ‘믿다’는 죄 사함을 위한 교회와 은혜로운 세례를 신뢰하다 이다. 그리고 ‘기다리나이다’는 ‘~을 기대하다’ 이다.<sup>164</sup> 일본어에서 ‘信じ’(신뢰)는 ‘信認’(행정적인 인정)과 ‘待ち望む’(기다리는 중)이라고 한다.<sup>165</sup>

### 10.2.4. 동아시아의 관점

“하늘의 길을 따르십시오. 왕이 잘못하면 그에게 조언을 하십시오. 우리는 잘못된 아버지를 좇기보다는 의를 좇습니다.”<sup>166</sup>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네 모든 죄가 내 것이니 너는 죄가 없으니 자유롭다.”<sup>167</sup> ‘용서’는 천상의 ‘은혜’(恩惠)를 말한다. ‘인’(仁)은 은총이다<sup>168</sup> “그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만큼 관대하다.”<sup>169</sup> ‘가난’은 물질적일뿐 아니라 영적인 의미이다. “신사는 규범을 따라야하며 하늘의 의향을 기다려야한다.”<sup>170</sup>

## 10.3. 제안

우리는 하느님과 분리된 윤리적 규범을 완성하기보다는 교회에서 ‘코이노니아’를 가르치는 것에 ‘의존’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도록 하느님께서 베푸신 죄에 대한 은혜로운 용서를 행정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넘치는 감사함으로 인정한다. 우리는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갈망하면서 기다리고 있다.

## 11. 원본에 대한 추가 조항

### 11.1. 현재의 니케아신경

1). “우리는 민나이다”는 삼위일체께 대하여 세 번, 교회에 대하여 한 번 쓰인다(미국성공회 공동기도서, 1877). 니케아신경 번역본들 안에 있는 조항들 또한 다양하다.

2).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이시요” 구절은 381-판이 아닌 325-판에서 나온 것이다. (영국 성공회 공동기도서, 1662), (미국성공회 공동기도서, 1977), (호주성공회 기도서, 1978), (웨스트민스터 장로회), (베어 크릭 연합 감리교회), (살아있는 진실 루터 교회), (캘커타의 복녀 테레사 본당), (북부해안 연합 감리 교회), (홍콩 성공회), (대한성공회), (일본성공회)

## 11.2. 반박 논거

### 11.2.1. 니케아신경 원문

325판의 “Theon ek Theou”(하느님에게서 나오신 하느님이시요)는 381판의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위에 중첩되어 있다. ‘peitho’(설득하다)에서 나온 단수 ‘Hepistousa’(나는 믿나이다)는 ‘Pisteomen’(우리는 믿나이다) 또는 381판에서 나온 구절로 변경되었다.

‘kai Uiw’(그리고 라틴어 구절의 ‘아들’ : filioque)는 원래 희랍어 본문의 ‘to sun Parti’(아버지와 함께)에 추가되었다.

### 11.2.2. 성경과 신학의 관점

“우리는 믿나이다”란 말은 삼위일체 하느님께 세 번이나 쓰인다. 그리고 한 번은 교회를 위해 쓰인다. 또한 “한분이시며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다음에 십표를 사용함으로써 아버지가 삼위일체가 아닌 하느님이시라는 오해를 자아낸다.

어떤 번역본에서 ‘우리’ 대신에 ‘나’를 쓰는 것은 16세기 영국성공회가 로마교회로부터 분리된 것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다.

325 판에서 가져온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은 아마도 당시의 이단인 ‘아리우스파’에 대항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넣은 것일 것이다. 그러나 이 조항은 현존하는 381 판 안의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란 말에 중첩되어 있다.

589년 톨레도 공의회 때에 “to sun Pari”(아버지)에 “kai Uiw”(Filioque)(그리고 아들)가 추가되었다. 그 이후로 이것은 서방교회에서만 사용되었다. 하지만 동방정교회에서는 이것을 정죄하였다. 그것은 1054년에 동서방교회 사이의 주요한 분열의 원인이 되었다.

성서에서, “내가 아버지께 청하여 너희에게 보낼 협조자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나를 증언할 것이다.”라고 하였다.<sup>171</sup> 1988년 램베스 회의에서는 이 구절을 니케아 신경에서부터 삭제할 것을 권고하였다.

### 11.2.3. 동아시아의 관점

인간에게 주시는 하느님 아버지의 계시는 하느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통하여 오기 때문에 서양에서는 구약성서에서 귀(耳)를 의미했다. 그러나 동아시아에서는 신탁을 받기 위한 그릇(口)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했다.

어원학적으로 ‘성’(聖, 신성한 도구)이란 글자는 서양이나 동아시아에나 ‘듣는 것’과 ‘보는 것’

을 나타내는 지구적인 계시를 나타낸다.

### 11.3. 제안

"나"는 믿나이다 라는 표현은 "코이노니아"를 위해서 "우리"는 믿나이다 라는 말로 대체되어야 한다.

“하느님으로부터 나신 하느님”이라는 조항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1994년 미국 성공회 총회가 결의했듯이 차후의 공동기도서 책에 들어있는 니케아신경 안에서 ‘필리오케(filioque)’ 조항은 삭제해야 한다.

## 요 약

니케아신경에 관한 애매한 번역은 다음과 같이 대체되면 원래 의미가 보다 명확하여 진다.

- 1)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코이노니아’를 위하여 ‘나는’ 대신에 ‘우리는’ 이다.
- 2) 윤리적인 신뢰인 “우리는 믿나이다” 대신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께 “우리는 고백(告白)하나이다”로 한다.
- 3) 숫자적인 한 분이시며라는 뜻이 아닌 따옴표(‘ ’)를 붙임으로써 존재의 삼위일체이신 ‘한 분’ 이시며 로 한다.
- 4) ‘조물주’(Maker) 대신 ‘창조주’(Creator) 하느님 아버지(성서에 있는)로 대체되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도 영어 번역본에서 ‘행하는 자(Maker) 대신 ‘기적을 일으키는 분’(Miracle-player)’ 또는 ‘성사적 권능자’(Sacramental-performer)로 대체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세 분의 ‘조물주들’(Makers)로 오해되어 혼란스러워지기 때문이다.
- 5) 하느님 아버지와 성령은 형체 없으신 ‘신성의 동등한 격’이다.
- 6)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부활하신’ 것이 아닌 하느님 아버지에 의하여 ‘부활되신’ 것이다 (수동태).
- 7) 예수 그리스도는 신적 존재로서 ‘좌정하심’.
- 8) 동아시아 번역본에서는 인간에게 선하심과 호의를 가진 ‘영’은 ‘조상’의 영을 뜻한다. “내가 말하는 사랑은 하느님에게 대한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에게 대한 하느님의 사랑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제물로 삼으시기까지 하셨습니다.”<sup>172</sup>
- 9) 신적인 실체로부터 나온 ‘성’(聖)이란 용어를 보자. ‘성부(聖父), 성자(聖子), 성신(聖神)’은 한국어 번역본에서 구어체로 ‘아버지’, ‘아들’, ‘신’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聖’을 이루는 글자 부수에서 ‘王’은 일본어 번역본에서 ‘王’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 10) (교회와 하느님의 나라를 위한) 생명의 넘치는 감사.
- 11) 반복을 피하고 성경적인 초점에 맞게 하자.  
불합리한 번역이 사라지지 않는 한, 오늘날의 기술과 사회적 가치관에서 무신론을 일으키고, 무신론으로 오해될 수 있다. 미래를 내다보며 검토하고 고려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시급한 과제이다.

## 인용목록

1. The Christian Oxford Dictionary
2. New Testament Greek For Beginners by J. Gresham Machen, The Macmillan Co., 1954
3. 常用字解 by 白川 静 2008
4. 常用字解 by 白川 静 2008
5. Oxford American Dictionary, Oxford University Press, 1980
6. 字统 白川静2007, 平凡
7. 經書成立 平岡武夫 創文社
8. 1고린 12:13
9. 에페 4:4
10. 요한 15:5
11. 2고린 13:4
12. 書經 康诰 (恫癘乃身 敬哉 天畏棐忱民情大可見 小人難保往盡乃心 無康好逸豫.)
13. 孟子 盡心下 (仁也者人也)
14. 로마 10:10
15. 1고린 11:19
16. 사도 11:23
17. 489, 字统, by 白川 静, 2007
18. P.719, 新化辞典, 2000, 北京
19. 莊子 12:13 (至德之世 . . .當而不知以為信)
20. 論語 16:8 (君子有三畏, 畏天命畏大人畏聖人之言)
21. 論語 2:22 (人而無信 不知其可也)
22. 論語 5:10 (始吾於人也 聽言而信其行 今吾於人也 聽其言而觀其行 於予與)
23. 論語 5:26 (朋友信之)
24. 論語 12:7 (子贡问政子曰 足食足兵民信之矣 曰去兵…去食…自古皆有死 民無信不立)
25. 孟子 5:84 (教以人倫 父子有親 君臣有義 夫婦有別 长幼 有敘 朋友有信)
26. 春秋繁露, 郊義 (五常:仁義礼智信)
27. 9-2, 北溪先生字義
28. 道德經 49 (聖人常无心 以百姓心為心. . .信者吾信之不信者吾亦信之)
29. 莊子 6:3 (夫道有情有信 无為无形)
30. 莊子 16 : 1 (信行容體而順乎文 體也 )
31. 道德經 10 (載營魄抱 一能無離乎 專氣致柔 能嬰兒乎)
32. 道德經 28 (常德不離 復歸於嬰兒)
33. 莊子 23:1 (能侗然乎 能兒子乎)
34. 道德經 29 (夫天下神器也)
35. 莊子 28:1 (故天下大器也)
36. 후지파 고다쥬가 쓴 초기 불교에서 있어서의 신(信), 불교사상(Buddhist Thought), 1992
37. 法華經 譬喻品

38. 菜根譚  
(间有習濂洛之说者牧之習竺乾之業者闢之為譚天雕龍之辯者遠之此足以畢予山伎倆矣)
39. Dictionary of Philosophy, by D.D. Runes, 1970, Littlefield, Adams & C.,N.J.
40. The Eerdman Bible Commentary and Rapids; By D. Guthrie, J.A. Motyer, 1978; Grand Rapids, Michigan
41. The Jerome Biblical Commentary, by R.E. Brown, Joseph A. Fitzmyer, Ro. E.M.O. Carm; 1979; Geoffrey Chapman.
42. 1고린 12:11
43. 마르 16:19
44. 新華子典, 2000
45. Dictionary of Philosophy, by D.D. Runes, 1970, Littlefield, Adams & C.,N.J.
46. 新华字典, 2000, Beijing
47. 東亞辞典, 1979, 서울
48. 東亞辞典, 1979, 서울
49. 角川国語辞典, 1974
50. 角川国語辞典, 1974, Tokyo
51. 道德經 10 (載營魄抱一 能無離乎)
52. 道德經 23 (是以聖人抱一 為天下式)
53. 莊子 12:8 (泰初有無 無有無名 一之所起 有一而未形 物得以生)
54. 창세 1:26-27
55. 영어 니케아 신경(The Nicene Creed in English version)
56. 이사 40:28 RV
57. 마카하 14:35
58. 마카하 7:28 RV
59. 히브 11:3
60. Concise Oxford Dictionary, 1966
61. Oxford American Dictionary, 1980
62. Concise Oxford Dictionary, 1966
63. Oxford American Dictionary, 1980
64. Dictionary of Philosophy, edited by Dagobert D. Runes, 1970
65. 新华字典 2000, 商務, 北京
66. 東亞辞典 by 東亞出版,
67. 角川 国語辞典, by kumatsu-senyichi & Sato-kenzo, Kadokawa, 1974
68. 詩經,大雅, 綜蒸民 (天生蒸民 有物有則)
69. 道德經 42 (道生一, 一生二, 二生三, 三生萬物)
70. 道德經 29 (天下神器)
71. 莊子 22:12 (物物者非物 物出 不得先物也. . .终无己者 亦乃取于是者也)
72. 莊子 22:10 (光曜问乎無有曰 夫子有乎其無有乎光曜不得问而孰 视其状貌窅然空然终日 视之而不见 聽之不闻搏之而不得也光曜曰至矣其孰能之此乎予能有无矣未能无无也)

73. 般若經, 習應品 (法性不與空合空不與法性合如是習應是名与般若波 羅密相應)
74. 字統 by 白川 静 2007 東京
75. 莊子 齊物論 (若有真宰 而特不得其眎 可行已信 而不見其形 有情而無形)
76. 莊子 齊物論 (未闻天籁)
77. 詩經 大雅 文王 (上天之載 無聲無臭)
78. 書經 多士 (则惟帝 降格 嚮于時夏)
79. 書經 召诰 (皇天上帝 改厥元子兹大国殷之命. ..嗚乎 天亦哀于 四方民)
80. 詩經 商頌 玄鳥 (天命玄鳥 降而生商)
81. 詩經 益稷 (鳳凰)
82. 마르 16:19
83. 1데살 1:10
84. 사도 2:32
85. 사도 4:10
86. 마르 16:6
87. 마태 28:7
88. 루가 24:6
89. 마태 28:6
90. 요한 14:16
91. 루가 1:30-35, 요한 14:17
92. 사도 6:44
93. 이사 45:13
94. 루가 24:51
85. 마르 16:19
96. 니케아신경. 381
97. 1고린 15:28
98. 에페 6:1
99. 요한 8:42
100. 요한 6:38
101. 시편 40:8
102. 마태 20:23
103. 마르 13:32
104. 요한 2:4
105. 요한 7:30
106. 마르 14:36
107. 요한 14: 6
108. 마태 10:38
109. 마태 2:12
110. 1고린 6:14
111. 莊子 18:4 (吾使司命復生子形 為子骨肉肌 膚 反子父母妻子 閭里知識 子欲之乎)
112. 春秋左氏傳, 襄公年 (叔予曰生死而肉骨也)
113. 요한 6:63

114. 詩經 大雅 文王 (文王陟降 在帝左右)
115. 莊子 大宗師編 (回坐忘矣)
116. 루가 1:35
117. Oxford American Dictionary, 1980
118. Concise Oxford Dictionary, Clarendon Press, 1966
119. 荀子 禮論 (王者天太祖 諸侯不敢壞 . 持手而食者 不得立宗廟. 大饗尚玄尊.)
120. 723, 說文解字註 by J. Yum.
121. 東亞辭典, 東亞出版, 1980
122. 角川國語辭典 by 東邦大學, 1974
123. 禮經, 郊特牲 (魂氣歸於天形魄歸於地故祭求諸陰陽之義也)
124. 詩經 天保 (神之弔矣詒爾多福)
125. 禮經, 大傳 (親親故尊祖)
126. 禮經 王制 (山川神祇有不舉者為不敬 不敬者君削以地)
127. 論語 2:24 (非其鬼而祭之 諂也)
128. 論語 6:22 (敬鬼神而遠之)
129. 禮經, 祭法 (人死曰鬼)
130. 春秋左氏傳, 僖公五年 (鬼神非人實親 惟德是依)
131. 易經, 周易繫辭, 下. (知幾其神乎)
132. 1고린 7:14
133. 에페 4:3-6
134. 로마 1:1
135. 마태 10:28
136. 130. 창세 13: 9
137. 민수 16:5
138. 시편 4:1
139. 사도 13:35
140. 이사 57:15
141. 이사 5:16 141. 로마 7:12
142. 요한 17:11
143. 사도 4:30
144. 이사 6:3
145. 사도 4:27
146. 요한 5:39
147. 로마 3:20
148. 목시 18:20
149. 유다 20
150. 로마 1:7
151. 마태 27:52
152. The Concise Oxford Dictionary
153. Oxford American Dictionary
154. 新华字典, 2000, Beijing

155. 新東亞辭典, 1979, Seoul
156. 莊子24 (以德分人謂之聖)
157. 書經, 皋陶謨 (天明畏自我民明威)
158. 角川國語辭典, 1974
159. 에페 5:24
160. 사도 2:47
161. 마태 13:24
162. Oxford American Dictionary, 1980
163. Oxford Chinese Dictionary, 2009
164. 東亞辭典, 1979
165. 角川辭典, 1974
166. 荀子 (子道編從道不從君 從義不從父 人之大形也)
167. 書經 湯誥 (其爾萬方有罪 在予一人 予一人有罪 無以爾萬方)
168. 詩經 喪服四制 (恩者仁也)
169. 論語 公冶長 (其良民也惠)
170. 孟子14:33 (君子行法 以俟命而已益)
171. 요한 15: 26
172. 1요한 4:10

